

# 보도자료

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



보도일	제한없음		
배포일	2019. 4. 11.(목)	홍보담당	홍보팀 (880-5054,9072)
담당부서	(재)서울대발전기금(기획팀)	문의	변영현 (871-1621)

## 봄처럼 따스한 서울대 동문 가족의 기부 소식

□ 서울대학교(총장 오세정)는 2019년 4월 10일(수) 관악캠퍼스에서 동문 가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약 3억원을 기부해온 이형도(화학공학과 1967년 졸업, 前삼성전기 부회장), 박효순(영어교육과 1970년 졸업) 동문 부부에게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. 행사에는 서울대 오세정 총장과 이형도 기부자, 사범대학 김희백 학장 등 주요 학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□ 이형도 동문은 “가족 모두가 서울대 동문이어서 항상 모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” 며 “이러한 가족들의 마음이 세계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후배들에게 전달돼 의미있고 보람되게 사용되길 바란다” 고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.

□ 오세정 총장은 “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동문님 부부의 사랑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” 며 “이형도·박효순 가족기금은 서울대 교육·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인재양성과 진리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이행하는데 소중한 활용하겠다” 고 말했다.

□ 이형도 동문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을 기획하고 삼성 애니콜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는데 발판을 마련했다. 기업의 CEO로 정년한 뒤

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,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했으며 자녀들과 큰 사위 모두 서울대 동문이다.

※ 사진설명: 감사패 전달 후 오세정 총장과 이형도 기부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